통계프리즘

고학력 기혼여성(35~39세)의 일자리 변화

○ 2013년 여성 고용률은 48.8%로 전년대비 0.4%p 상승, 여성 취업자는 전년대비 200천 명 증가하는 등 최근 고용증가세를 이어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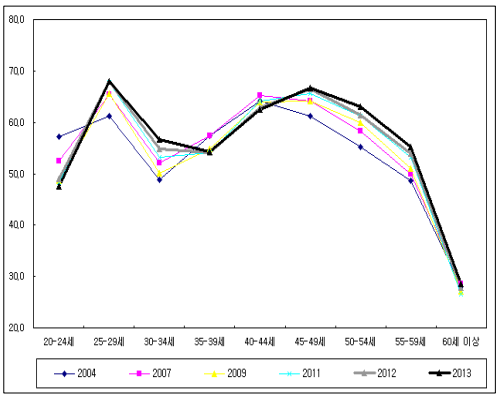
○ 그러나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데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함.

- 고학력 기혼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30대 초반 고용률은 2012년에 비해 상승한 반면, 30대 후반 고용률은 2012년과 비슷한 수준임.
- 2013년 여성의 고용이 활발했던 것에 비해 30대 후반 고학력 기혼여성의 고용률 정체는 이들이 육아나 가사의 부담으로 인해 일터를 떠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근로자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줌.
- 35~39세 고학력 기혼여성의 미취업자는 2013년 268천 명으로 이들 연령층 생산가능인구의 46%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직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들 중 육아나 가사의 부담으로 전직한 미취업자(전직한지 1년 미만)의 비중은 2008년 21.8%에서 2013년 현재 39.9%로 증가함.
- 한편 40~50대 고학력 기혼여성 연령의 고용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최근 여성의 고용증가세를 견인하는 연령층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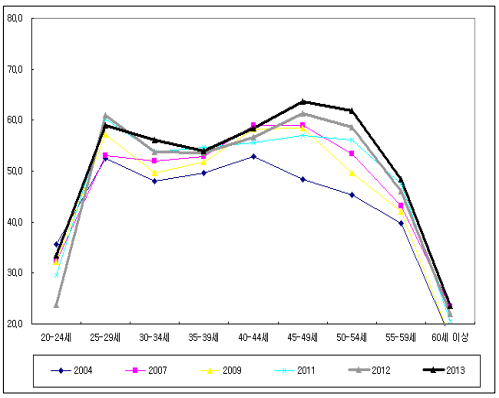
〔그림 1〕 여성 · 대졸 이상 고학력 기혼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여성 전체>



<고학력 기혼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육아나 가사의 부담으로 노동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5~39세 고학력 기혼여성의 중간일자리의 비중은 국제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상위일자리의 비중은 하락함.[1)]

- 여성근로자 전체를 보더라도 중위일자리의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이고 상위일자리의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30대 후반 고학력 기혼여성의 상위일자리 비중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큼.
- 특히 35~39세 고학력 기혼여성 중 신규취업자의 상위일자리 비중은 2008년에 비해 하락함.
- 반면 한 직장에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학력 기혼여성(35~39세)의 일자리 10개 중 7개가 상위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나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재취업한 이들의 일자리의 질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임.

○ 한편 국제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50대 초반 연령대의 고용률은 큰 폭으로 상승함.

- 최근 여성의 고용증가세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50~54세 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에 비해 고용률이 11.6%p나 상승함.
- 50대 초반 기혼여성 근로자 중 신규취업자의 일자리는 주로 하위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

〈표 1〉 여성 임금근로자 · 고학력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비중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여성 전체	하위일자리	39.6	39.0	38.4	37.1	37.3	37.0
	중위일자리	41.3	41.6	42.6	44.4	45.1	45.5
	상위일자리	19.1	19.4	18.9	18.4	17.6	17.5
고학력 기혼여성	하위일자리	7.2	8.2	7.6	6.2	6.2	5.8
	중위일자리	36.4	37.8	41.8	44.2	44.1	45.1
	상위일자리	56.4	54.0	50.7	49.6	49.7	49.1
고학력 기혼여성 신규취업자	하위일자리	18.9	20.5	19.8	16.0	18.9	14.9
	중위일자리	37.5	40.4	46.8	46.9	46.5	49.0
	상위일자리	43.6	39.1	33.4	37.1	34.6	36.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 본고에서는 중간일자리를 산업 · 직종셀을 하나의 일자리로 보고, 이 일자리에 해당하는 시간당 임금수준의 중위값을 일자리의 질로 판단함. 산업 · 직종셀별 임금을 서열화한 다음, 기준연도 근로자 수의 25~75%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중간일자리로 간주함.

〈표 2〉 35~39세 고학력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비중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혼	하위일자리	6.4	7.7	6.5	4.2	4.6	4.7
	중위일자리	34.3	42.4	45.4	42.8	40.7	41.8
	상위일자리	59.2	49.9	48.1	53.0	54.8	53.5
신규취업자	하위일자리	14.7	21.0	16.3	8.0	17.1	14.2
	중위일자리	39.0	41.4	44.9	51.4	44.2	51.6
	상위일자리	46.3	37.6	38.8	40.7	38.7	34.2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하위일자리	0.2	0.1	0.3	1.4	0.1	0.0
	중위일자리	27.9	29.5	32.8	32.3	28.6	26.6
	상위일자리	71.9	70.5	66.9	66.3	71.3	73.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 50~54세 여성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비중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0~54세 여성근로자 전체	하위일자리	65.1	60.3	60.8	61.4	56.6	53.7
	중위일자리	28.4	32.2	31.7	32.0	35.6	36.6
	상위일자리	6.5	7.5	7.4	6.6	7.8	9.6
신규취업자	하위일자리	79.4	74.1	74.3	72.9	69.6	73.0
	중위일자리	18.4	23.9	23.3	23.3	27.2	24.1
	상위일자리	2.2	2.1	2.4	3.8	3.2	2.9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하위일자리	7.4	7.3	8.9	12.0	8.6	6.7
	중위일자리	42.0	31.8	29.8	34.7	31.4	33.2
	상위일자리	50.6	60.8	61.3	53.4	59.9	6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타깃으로 고용률이 정체되어 있는 경력단절된 35~39세 고학력 기혼여성을 노동시장 안으로 유인해야 함.

–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경력단절의 반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사,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양질의 보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더불어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을 고려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